

2022. 12. 8

해외동향부 (제 6384)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국채금리, 전일비 큰 폭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은 부적절
 - ECB 설문조사, 유로존 10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 대비 상승
 - 중국 11월 수출입, '20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 해외 수요 부진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공격적인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예상 등으로 5일 연속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향후 경기침체 전망 확산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4%,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 불확실성 등이 반영
독일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2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314.5원, -7.2원) 0.5% 하락, 한국 CDS 상승

		12/7일	12/6일	전일대비			12/7일	1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33.9	3,941.3	-0.19%	국채 금리 10y	미국	3.42%	3.53%	-11bp
	유럽	436.20	438.92	-0.62%		독일	1.78%	1.80%	-2bp
	중국	3,199.6	3,212.5	-0.40%		영국	3.04%	3.08%	-3bp
	일본	27,686	27,886	-0.72%	CDS 5y	한국	54bp	53bp	1bp
	한국	2,382.8	2,393.2	-0.43%		중국	76bp	79bp	-3bp
환율	달러지수	105.18	105.58	-0.37%	위험 지표	EMBI+	-	391	-
	유로화	1.0508	1.0467	0.39%		VIX	22.68	22.17	2.30%
	엔화	136.55	137.00	0.33%		WTI유	72.01	74.25	-3.02%
	위안화	6.9700	6.9950	0.36%	원자재	구리	385.5	381.2	1.13%
	원화	1,321.7	1,318.8	-0.22%		금	1,786.4	1,771.0	0.8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국채금리, 전일비 큰 폭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 12/7일 대부분의 미국 국채금리가 전일비 하락(2Y 4.26% -11bp, 10Y 3.42% -11bp). 30년 국채금리는 9월 이후 처음으로 3.5% 이하에서 마감(3.43% -11bp). 이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경기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수익률 역전 현상이 최근 더욱 심화
- 특히 고물가 장기화가 현실화되면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도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 시장에서는 연준이 유도하는 경기침체가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DataTrek Research의 Nicholas Colas)
- 한편 이날 발표된 3/4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은 전기비 0.8% 올라 속보치(0.3%) 대비 향상되었고, 단위 노동비용의 분기 상승률도 속보치 대비 하락(3.5%→2.4%). 단위 노동비용 증가세는 노동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JPMorgan의 Daniel Silver). 이는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연준의 보다 강력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
- 과거 역사를 돌아본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Eaton Vance의 Chris Dyer). 최근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의 결정이 관건(Convera의 Joe Manimbo)
-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는 12월과 2월 FOMC에서 각각 0.50%p 인상되면서 정점(4.75%~5.00%)에 이를 전망. 한편 금리인하는 11월에 -0.25%p를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소비자신용, 전월비 증가. 차량 구매 수요 증가 등이 원인

- 10월 소비자신용은 270.8억달러로 예상치(285억달러) 하회했으나 전월(249.8억달러)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 리볼빙 신용과 비리볼빙 신용이 각각 101억달러, 170억달러 증가. 비리볼빙 신용은 차량 구입 수요 확대 등이 영향

■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법을 준수할 필요

-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중개업체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영업 중인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은 부적절**
 - 카지미르 총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 정점 도달을 축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 아울러 한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으로 통화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피력
- **ECB 설문조사, 유로존 10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 대비 상승**
 -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5.4%로 전월(5.1%)보다 높은 수준. 다만 3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보합(3.0%→3.0%). 내년 초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고 이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중국 11월 수출입, '20년 2월 후 최대폭 감소. 해외 수요 위축 등이 원인**
 -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비 8.7%, 10.6% 줄었으며, 무역수지 흑자폭 또한 감소(851.5억달러→689.4억달러). 이번 결과는 해외 수요 부진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교란 지속 등이 원인으로 거론
 - 내년 글로벌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내 수요에 좀 더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Pinpoint Asset Management)
- **일본은행 정책위원,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은 시기상조**
 - 나카무라 위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서비스 가격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통화정책을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
-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50%p 인상. 향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 성명문에 따르면, 정책금리를 0.50%p 높은 4.25%로 결정. 한편 수요 공급의 균형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 중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7 현지시각 기준)**
 - 독일 10월 산업생산(전월비): -0.1%, 9월(0.6%), 예상치(-0.5%)
- **주요 경제 이벤트(12/8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1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경기침체, 수익률 곡선 역전 폭이 시사하는 것보다 약할 가능성 - 블룸버그

(What the Yield Curve Says About the Next Recession)

- 금년 7월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상태이며, 역전 폭(약 0.8%p)은 1978~1982년 이후 가장 커 투자자들은 40년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을 우려
-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려면 수익률 곡선 역전을 화폐적 역전과 실물경제 역전으로 구분할 필요. 화폐적 역전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원인. 실물경제 역전은 불경기에 장기 자금보다 단기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과정에서 발생
- 현재 상황은 통화적·실물경제 역전의 성격이 모두 내재. 정책금리가 직전 2년보다 124bp(1978~1980년은 194bp) 높고 S&P500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14%, 1980~1982년은 -18%)임을 감안하면 침체 수준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 수년 간 지속될 소지 - Reuters

(Europe's inflation problem will linger for years to come)

- ECB는 7월 이후 정책금리를 사상 최대 폭(2%p) 인상했으나, 높은 에너지 가격,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세 가속화 등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한 상태
-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경기침체는 당초 우려에 비해 가벼운 수준에 그칠 전망. 이는 '23년초부터 인플레이션이 하락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하고,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을 시사
-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딜 경우 경제활동 주체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임금 및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가파른 물가상승 국면을 장기화시킬 우려. 특히 기업들이 해고를 기피하면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유지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시장 영향은 다르게 전개될 소지 - Financial Times

(China's reopening to reverberate around global markets)

- 최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관련 기대가 확산. 이로 인해 관련 효과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의 가속화가 예상.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기대 심리가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신흥국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석유 및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상방 요인이 된다고 평가
- 반면 중국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면 공급망 충격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시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의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

■ ECB의 양적긴축,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될 필요 - 블룸버그

(ECB Seizing the Day for QT Shouldn't Count on Market Tranquility)

-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수익률 스프레드 축소 등 유럽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향후 ECB는 양적긴축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ECB가 최근의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기반으로 양적긴축 계획을 세운다면 이는 향후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
- 이는 안정적 시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 금년 겨울 유럽에서 경미한 경기침체 발생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고물가가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 부진으로 연결될 소지
- 또한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 보조금 확대로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ECB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 이와 같은 정부부채 및 금리인상 경로 관련 불확실성 역시 위험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노동참여율 감소,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 블룸버그

(Mass Long-Covid Disability Threatens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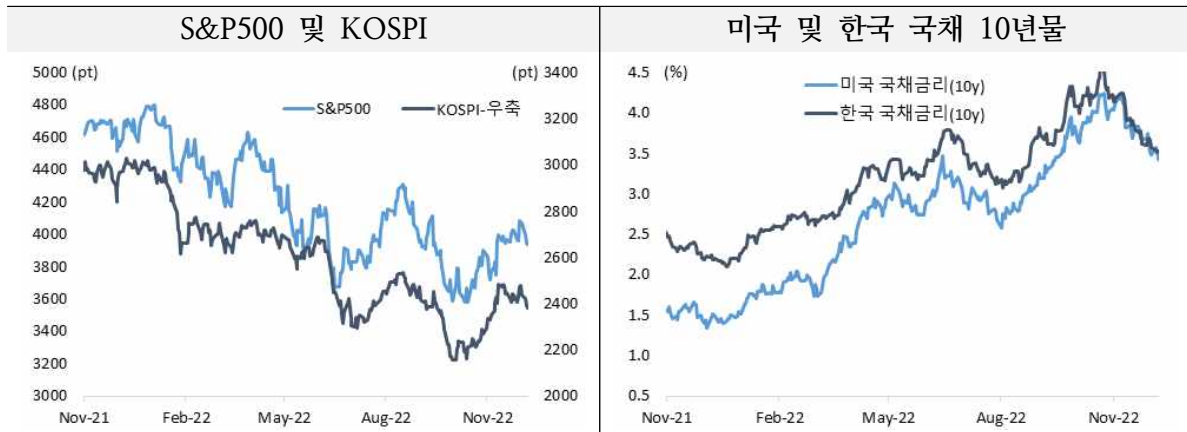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세계 경제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 - WSJ

(What China's Covid-19 Reopening Means for Markets)

■ 글로벌 공급망 문제 완화, 소비 촉진을 일으켜 공급 측에 긍정적 - 블룸버그

(Gloom on the Factory Floor Will Soon Give Way to Chee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